

나라사랑 원로모임 만찬 중 말씀

역사변화의 순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의 무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르신 모시고 인사를 올리게 돼 매우 기쁩니다. 대통령 취임 후 외국 나가보니 비교적 대우를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위상이 나가서 상당히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만큼 온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 세대에서 이뤄준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앞 세대를 사시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경험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영훈 대표가 원로가 모이는 좋은 모임이 있으니 그분들을 모시면 우리 사회 좋은 어른 다 모시고 좋은 얘기 듣는 것이라고 일깨워주셨습니다.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 듣는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모시게 되니 마음의 짐을 벗는 기분입니다.

유념하고 참고해야 할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도 있고 때로는 나쁜 말씀도 있겠으나, 나쁜 말씀이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탄없이 말씀해주십시오. 역사를 이끌어오며 쌓으신 경험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바른 방향으로 갈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변화를 수용하고 조절 하겠습니다

여러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욕심스러운 눈으로 보면 한국 사회 변화가 답답하고 짜증이 날 것이고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 있게 보면 한국만큼 전망이 밝은 나라도 찾기 어렵습니다. 저도 변화의 촉구를 위해 투쟁도 하고 몸부림도 쳐봤으나 정치를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1945년 식민지 해방된 나라 중 경제업적도 한국이 가장 앞서고, 정치상황도 혼란스럽게 보이기는 하나 한국의 정치발전 속도는 놀라운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움도 새 질서로 가는 과정입니다. 더 빨리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과 불협화음은 진통이라 생각하며 오늘 상황을 수용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하며 보니 제가 뜻을 세워 가는 것보다 역사 변화의 순리를 어떻게 겸허히 수용하는가가 큰일입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기보다 변화 상황을 수용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수용해나가도록 조절하는 게 제 몫입니다.

원 이사장께서 개발, 보존, 환경, 생태와 인간의 가치에 관해 말해주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정서를 조화롭게 받아들여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속도를 충분히 수용할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데 대해 존중하고 조화 이뤄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한국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한미관계, 남북관계에 대해 국내에서 의견차이가 많고 갈등이 있습니다. 모두 예스만 해도 적절치 않고 노라고만 해도 적절치 않습니다. 사안과 경우에 따라 예스, 노를 선택하되 한국이 ‘노’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과거보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수용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잘 관리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10여년 뒤에는 세계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빨리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민주화 과정이 87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10년간 너무 더딘 것 같고 제자리거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지나고 보니 많이 변화 발전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시절 민주주의의 길이 넓게 확장돼 대로가 만들어졌고 길게 길이 닦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통해 대통령 자리에 와보니 그 길이 잘 포장되지 않아 구덩이도 있고 흙탕물 고인 곳도 있었습니다. 오면서 당연히 크고 적게 먼지나 흙탕물을 뒤집어써서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이가 먼지를 뒤집어쓰지 않게 도로를 잘 포장하는 일이 내 몫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